

## 社會淨化運動의 理念과 方向(제 6 회)

大韓齒科醫師協會 淨化推進委員會

### 2. 學校教育

학교교육은 知育, 德育, 體育이 三位一體가 조화될 때 진실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國民精神改革을 목표로 한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주로 학교교육에 있어서 德育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國家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실질적 근거는 교육에 있다고 할 때, 비뚤어진 국민의 價値觀을 바로잡고 참다운 正義社會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지닌 젊은이들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國民 道義를 옹기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각 학교마다 學校淨化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학원내의 각종 非理를 제거하고 건전한 학원풍토를 조성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勤勉·正直한 학생상을 定立하고 교원의 使命感 昂揚과 教權確立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교정화운동은 1966년 봄, 일부 지방학부형들의 ‘과의공부 안시키기’ 운동으로 전개되었었고 한때는 문교, 내무, 법무, 보건사회부의 협동적인 방침에 의해 「學園淨化委員會」를 구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신교육의 改革試圖가 있었지만 학교자체의 努力만으로는 實效를 거둘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학교정화운동은 汎國民的인 사회개혁운동과 步調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입시제도의 개선, 과외수업 및 보충수업의 폐지, 학교내 각종 부조리의 제거 등 획기적인 教育改革과 더불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학원풍토조성을 위한 最適의 機會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정화운동의 올바른 취지와 理念을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이를 장기적으로 계몽하고 지

도할 때, 正直, 秩序, 創造의 精神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학교와 사회에 일관되는 새로운 국민정신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정화운동의 理念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몇가지 착안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자 스스로 사명감을 확립하는 일이다. 教育의 成敗는 무엇보다도 교육자의 德望과 知的 能力과 자기직업에 대한 사명감의 정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전체 교육자가 교육에 대한 熱情과 召命意識이 강하고, 교육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눈이 신뢰와 존경을 나타낼 때, 그 국가는 미래에 대한 希望과 自信感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반대일 경우 그 국가의 미래는 不確實하고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이란 내일의 열매를 위한 오늘의 씨뿌림이며 교육자란 그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을 訓育하고 啓導한다는 점에서 生産的 미래를 향한 현실적 거름이며, 傳統價値를 온전히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一部 교직자 스스로가 그러한 사명 의식을 잃어버린 傾向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가 또한 그러한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理由로 우리 교육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직자의 離職率이 높아가고, 교육에 있어서 인격지도 보다 지식 전달이 주된 교육의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교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문제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교직자의 使命感이 투철하지 않고서, 그리고 사회가 교육자의 士氣를 북돋아주지 않고서 거기서 배우는 학생들의 정신적 자세와 道德武裝이 철저히 저해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지속적인 학술적 연마와 교직에 대한 참다운 自覺과 열정 뿐만 아니라 교직자 스

스로의 人格陶冶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信賴받는 師道의 振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사들로 구성된 학교정화추진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우선적인 과제인 것이다.

둘째, 참다운 人格中心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인간의 尊嚴性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價値觀의 혼란은 物質的 利益에 偏重하는 利己主義와 지식만능의 풍조를 조장하여, 참다운 인간성의 啓發을 소홀히 하고 지식 습득을 통한 개인적 出世를 重視 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의 養育보다는 知的 優劣만을 가름하는 過熱競爭을 초래하여 「教育 公入試準備」의 逆理的 現象을 낳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과서와 참고서 이외의 교양서적은 거의 읽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격을 결여한 지식이 얼마나 이 사회의 진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正義·道德社會를 이루는데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知育, 德育, 體育의 조화로운 삼위일체를 통해 全人教育의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학교교육이 암기식·주입식 학습이라는 非正常的 知育開發에만 치중하였으며, 건전한 體力鍊磨를 소홀히 하고, 더구나 의지의 강인성과 판단의 정확성, 그리고 知性과 感情의 조화로 완성될 수 있는 德育에 무관심함으로써 교육적 危機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학교정화운동은 形式的이고 피상적인 활동보다는 인간의 존엄함을 자각하는 대대적인 정신적 개혁의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의 귀함이 알고, 남이 나에게 흠됨을 거부하듯이 추호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습성화함은 물론, 서로가 믿음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신뢰하는 사회,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고 그러한 사회를 바탕으로 서로의 個性과 能力을 존중함으로써 創意的인 노력이 相互間에 고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식전달 爲主의 교육을 탈피하여 인간성 회복과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民主人格陶冶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知德間에 조화를 이룬 교육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근대적 사회윤리로서 公益精神을 함양하는 일이다. 우리의 民族理念이자 교육이념인 「弘益人間」은 곧 오늘날의 공익정신과도 통한다. 앞서 말한 인

格中心教育중에서도 특히 공익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高度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개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個人倫理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要求되는 바람직한 가치관과 행동양식, 즉 社會倫理가 보다 큰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윤리 중에서 개인보다는 전체 利益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공익정신이 핵심적인 要素라고 볼 수 있다. 공익정신이란 무엇보다도 개인들이 준범정신에 立脚해서 諸般 法律이나 規程을 준수할 때 소속집단이나 사회의 질서가 維持되며, 그러한 질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기본적인 條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준범정신 함양을 위한 훈련으로 학교가 합리적인 校則 또는 學則을 만들고 그것을 遵守 시킴에 있어서 단순히 '〇〇를 지켜라'고 하는 指示的 教育보다는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닫도록 함으로써 指示속에 이루어지는 피동적인 遵守보다는 실득과 이해 속에서 自發的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 정신을 함양하는 한 方法으로서 협동심을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점차 複雜해가고 多元化되며 分業化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맡은 바 職務를 충실히 遂行한다는 것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여러가지 도움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협동의 중요성을 認識시키고 그것을 體質化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에 있어서 서로 協同하여 이룬 결과와 각자의 個人的인 노력만으로 이룬 결과, 그리고 서로 시기하며 이룬 결과 등을 항상 비교 검토하게 함으로써 협동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적으로 認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알고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人格教育이란 교실에서 學習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속에서 실천되고 그 가운데서 윤리규범들이 의식구조속에 內面化 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승의 말이나 學習教材속에 收錄된 제반 도덕적 규범이 교실, 혹은 강의실내에서만 이해되고 학습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誘導되어야 한다.

학교의 도덕교육은 바람직한 몸가짐과 마음가짐, 바람직한 말씨, 바람직한 對人關係가 어떠한 것이

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터득케 하는 것이며, 또한 生活속에서 실제 이루어진 言行에 대해서 서로 討議하며 反省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암기하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차라리 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며, 그것은 道德價値를 말로만 읊조리는 앵무새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正規科目에 의한 교육 이외에도 학생상호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는 自治活動의 기회를 자주 부여하여 이를 잘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校外的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善導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 지도에 있어서 一日一善의 생활을 習性化하고 作文이나 日記 등으로 반성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며 傳記物을 통하여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몸소 올바른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에 옮겼는가를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考慮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다섯째, 개인의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創意性이란 개인발전과 사회발전의 근원적인 요소이다. 문제의식이 없이 단순히 지식습득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停滯되고 발전이 늦은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에는 思考나 表現에 관련된 能力과 적극적인 실천력, 그리고 사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교양이 중요한 것이라 본다. 우리는 창의적인 態度와 能力,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교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教育에서는 암기력을 이해력에 우선시했고, 창의적 개발을 위한 실험실습이나 추리력을 增進시키는 학습보다는 짜여진 교육내용의 구태의연한 反復的 注入教育으로 사고의 탄력성을 개발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서서히 해결되고 있지만 지난날 지나친 입시경쟁은 자자가 삶의 값진 목표를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知的 성장과 인격수양을 한다기 보다는 단지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획일적이고 그릇된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들도 참된 人間形成을 위한 인격지도와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다운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創意力 開發은 등한시하면서 다수의 학생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점수 따기의 妙方들에 온갖 노력을 경주해 왔다. 사회적 풍토가 그것을 認定하고 있었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육으로 착각되었다. 너무나도 비생산적이고 비창조적인 교육풍토였음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그와같은 비정상적인 교육풍토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적극적 努力이 교육의 중요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각급 專門機關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필요한 노력은 學生들에게 國家와 社會의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個人的 立場에서 판단하여 스스로가 국가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解決하는 實踐의 主體人이라는 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意慾으로 창의성을 발휘토록하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풍부하고 객관적인 知的 情報가 獲得될 수 있도록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는 동시에, 실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趣味, 適性, 特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思考하고 表現할 수 있는 자유로운 학습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심리학 등 창의성 개발에 관련된 과목을 履修토록 하여 온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각종 실험, 실습이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教育시설을 補強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교육은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학교외적인 교육과 긴밀하게 협조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이미 가정교육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교육이 가정교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사들은 학부모들과 긴밀한 협조속에서 학생들의 인격교육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또한 학교교육을 사회교육과 연결시킴으로써 사회에 進出한 학생들에게 윤리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은 학교교육이 사회에 步調를 맞추어 나간다고보다 왜곡된 社會的 現實이 학교교육을 主導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교교육의 革新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사회의 不正과 不義에 汚染되어 버린다는 악폐가 있었으므로 더욱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회정화운동이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사회교육이 일관성있게 상호협조되어 推進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정신교육의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3. 職場教育

産業社會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學校를 졸업한 후 평생을 職場에서 보내게 된다. 따라서 職場은 學校生活的 延長으로서의 의의와 일생동안 일하는 터전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社會淨化의 次元에서 바람직한 직장인이 되고 건전하고 명량한 직장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職場教育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 보기로 한다.

대부분의 職場은 기성세대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近代的인 組織體系와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가진 조직이 있는가 하면 家父長的 조직체제와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조직 또한 허다하게 발견된다. 그런데 비합리적이고 비리와 폐습이 팽배한 조직이라도 그 나름대로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매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새로 轉入되는 正直하고 誠實한 사람이라도 그 분위기에 물들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아무리 學校에서 原理原則을 가르쳤다 하더라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刷新되기는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社會淨化運動이 汎國民的 運動으로 확산되고 있던 80年 여름에 이미 각급 職場 또는 社會團體에서 자체내의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고 새로운 職場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職場淨化推進委員會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큰 成果를 거두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점은 社會的 不條理들이 청소년보다는 기성세대 특히 각급 職場에서 일하는 職業人들에 의해서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國家社會의 發展目標에 발맞추어 未來志向의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職場教育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직장교육은 각자가 자신의 能力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맡은 바 職分을 다하고 직장내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協同的이고 創意的인 業務遂行이 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職場人은 직장내의 각종 規範과 規則을 엄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언행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직업을 통하여自我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한다는 職業

倫理를 스스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大衆化되고 組織化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分業化됨으로써 개인의 역할이 기계적이고 단순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따라 현대의 직업인은 무력감과 소외를 느끼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産業社會에 요청되는 倫理의 본질을 올바로 터득하여 職場生活이 보람있고 또 사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의식을 직장인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職場淨化運動은 각 직종별 研修教育의 기회를 활용하여 職業倫理와 職場倫理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에 산재하고 있는 각급 직장의 多樣性을 고려할 때, 각 직장은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倫理規範을 스스로 발굴하여 교육하고 실천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공통적인 職場教育의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職業 또는 職責의 貴賤意識이 타파되어야 하겠다. 사회는 구성원들간의 連帶體系로서 직업간에 相互補完的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명예스럽고 보수가 낫다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職業간의 우열을 분명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많은 직업들은 각각 국민들의 生活便宜를 위해 부분적인 몫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으로 社會的인 調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身分的인 계층의식이 아직 잔존해 있기 때문에 사무직 선호경향이나 職責志向的인 그릇된 職業觀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다. 또한 職場內에서 男女差別의 경향도 하나의 폐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前近代的인 職業觀을 타파하고 각 직업 또는 직책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서로가 인정하는 風土를 하루 빨리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직업 및 직책간에 均衡이 잡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 과도한 昇進競爭이나 특수직종에 편중되는 경향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직과 사회에 봉사한다는 職業倫理를 함양해야 하겠다. 지난날 職業教育은 기능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된 감이 없지않다. 職業教育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문제는 기능의 훈련내용이나 方法보다도 職業觀의 형성이라고 본다. 물론 이것은 가정교육

이나 학교교육에서부터 職業과 社會階層의 서열에 연결시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職業의 존엄성과 직업을 통해서 개인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도록 유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자신의 本分遂行보다도 사소한 이익에 혈안이 되거나 출세에 신경을 쓰는 그릇된 職業意識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한다. 독일의 학자 베버(Weber)의 말처럼 직업은 곧 神의 召命처럼 느끼는 職業觀이 절실하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教育者는 젊은 세대들을 건전하게 길러내고, 의사는 환자를 보살피고, 각종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本分을 잊어버리고, 출세를 위해 또는 돈을 위해 아니면 대우가 좋지 못하다고 不平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발견하게 된다. 올바른 職業倫理의 內面化는 産業社會인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課題의 하나이다.

셋째로, 職場教育은 업무처리의 公正性を 강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職場에 있어서 正直과 秩序의 理念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요인인 것이다.

어떤 직업,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업무는 다른 사람과 항상 연관성을 지니게 마련이다. 그리고 業務結果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대체로 여러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公正하지 못한 業務處理란 곧 비합리적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취급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못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이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人脈이나 金錢的인 유혹에 의해서 公正성을 잃었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不信과 不滿을 유발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단결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公職者의 경우에는 사사로운 경우보다 그 피해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公正한 일처리가 더욱 요구된다.

社會淨化運動의 1단계 작업에 의해서 많은 비양심적 公職者들이 제거되었지만 아직도 그 潛在的인 要素가 구조적인 矛盾이 완전히 除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公職者를 포함한 모든 職業의 종사자들이 原理原則에 입각해서 각자의 業務를 공정히 처리할 때만이 올바른 社會紀綱이 確立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職業과 職責에 따른 公正한 보수의 개념을 확립해야 하겠다. 보수란 곧 자기가 노동을 통해 組織을 위해서 기여하에 대한 댓가인 것이다. 근로자는 자기가 받는 보수를 타하기 전에 자기가

기여한 일의 성과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기업인은 非合理的인 보수체제로 근로자들의 不滿을 사지 않아야 한다.

물론 公正한 보수체계의 確立은 社會的인 課題이다. 公正한 보수체제는 正義社會 具現의 핵심적인 要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히 나은 待遇를 해주어야 하며, 일의 어려움이 크거나 공헌도가 클수록 더 나은 待遇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會社내에서 일반적으로 專務職을 우대하고 技術職은 낮게 대우하는 現實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 변호사 등 專門職業人과 企業主가 얼마만큼 자신이 기여한 일에 비례하는 처우를 받고 있는가 하는 問題이다. 專門職業人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評價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의 成果에 비해서 과도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으며, 기업주들의 노력도 평가되기 어렵지만 社會的 功績에 어긋나게 보수를 받아 大衆의 질시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專門職業人과 企業人을 위한 職業教育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社會적으로 봉사하며 公正한 보수를 받는다는 職業倫理 함양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職場淨化運動은 多樣한 형태의 教育手段을 통하여 직장 책임자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반성하고 부정적인 要素를 제거하면서 새로운 職場倫理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다함께 노력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正義와 常識이 통하는 職場이 못되고 淨化運動을 빙자하여 건설적인 비판을 억압하려는 기도는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職場淨化運動은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産業民主主義的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教育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課題와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직장의 고유 業務處理와는 달리 職場淨化를 위한 教育은 하향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된다. 즉 간담회나 토론 모임 등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 協同的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한 職場教育이 성공적인 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직장의 간부들 자신이 教育內容에 어긋남이 없도록 善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 4. 社會教育

社會教育의 범위는 통상 學校教育 이외의 모든 教

育을 통칭하나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家庭教育, 學校教育 그리고 職場教育을 제외한 모든 教育을 포괄하여 다루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言論界, 宗教界, 그리고 文化界의 정화운동은 사회교육의 방향에 유의하여 推進하는 것이 기대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지식이나 정보를 대중 매체를 통하여 획득하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나 문화활동은 현대인의 여가선용을 위한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더구나 現代와 같이 복잡하고 기계화된 사회에서 宗教가 갖는 정신교육적 역할이 지대한 것이다. 나아가서 의학의 발달에 따라 老人人口가 많아짐에 따라 老人教育도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새헌법에 平生教育 조항이 명시됨에 따라 社會教育法 등 관계법안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본격적인 社會教育이 전개되리라 본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신혁명을 시도하는 사회정화운동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言論界, 文化界, 宗教界의 사회교육적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現代社會로서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몇가지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大衆文化의 특성문제이다. 근대기술의 발달로 국가간의 文化交流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통신매체의 발달은 世界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재창조하기도 전에 과도한 외래문화의 직수입으로 사회의 문화적 혼란을 가중 시켰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러나 사회정화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사회의 전통적 社會倫理에 익숙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都市社會에 옮겨와서 民主市民답게 행동하고 近代的 經濟倫理를 갖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은 문화적 갈등문제 뿐만 아니라 大衆社會의 성격에서 오는 소외감과 무책임감 또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못느끼며 國民統일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로, 기술발전과 巨大組織의 발달은 도시문화의 영향이 농촌지역까지 직접적으로 마침으로써 농촌사회의 고유한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고, 도시를 중심으로한 행정기관, 회사, 방송시간, 문화단체 등이 만든 都市의 文化의 産物이 획일적으로 농촌까지 침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現代社會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며 개인적 생활의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시인들이 텔레비전을 큰 오락수단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매체는 그 메시지의 일방성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소외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現實속에서 볼 때, 바람직한 社會教育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바람직한 교양을 주어야 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社會倫理의 확립을 위해서 사회교육에 직접·간접으로 연관된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의 계몽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활동이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창의적 노력이 절실하게요망되는 것이다. 특히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한 大衆媒體는 그 社會教育의 役割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날 우리의 文化界 一部에서 외국작품의 소개 또는 번역, 모방에 급급하거나 국민의 정신교양을 위한 봉사보다는 營利에 급급한 예도 없지 않았다. 종교계도 교회나 사찰안에서 고고한 哲學과 倫理를 부르짖었으나 울타리 밖의 사회상에 대하여 무관심한 면이 많았다고 본다. 일부 문화단체나 종교단체는 과벌싸움이나 감투쟁탈에 휘말리는 예도 허다하였다. 언론기관도 정부기관이나 사회의 문제들을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言論이 너무나 상업적이었거나 또는 언론인 자신들의 능력향상이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위한 노력을 등한히 한 바 없지 않다. 건전한 國民運動을 표방하고 있는 많은 사회단체들도 國民運動보다는 자리와 利權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제 사회정화운동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이때, 국민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각급 조직이나 단체들은 자체의 부조리를 제거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식혁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그리고 사회단체들도 자체의 고유한 임무수행을 통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중심으로 社會教育의 役割을 이행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다.